



2만달러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10년 가까이 주춤거리면서 1만달러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작심' 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조기개막을 위한 목표를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9천930달러로 조사대상 240개국 중 52위에 마크되어 있다. 소국 포함 2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27개국인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4만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스위스, 덴마크, 일본, 아일랜드는 3만달러를 넘어섰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홍콩, 싱가포르도 2만달러를 훌쩍 넘어섰으며 멕시코, 체코, 헝가리 등이 5, 6천달러 수준에서 우리를 뒤쫓고 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기대만큼 그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듯 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국민소득 2만달러 가는 길'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2년 현재 596조원인 국내총생산(GDP)규모가 1천50조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279조원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454조원이 늘어나야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만달러 이상 선진국의 1등 상품 평균 보유개수가 192개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69개인 우리나라의 1등 상품 수를 200개까지 늘리려면 1등 상품 19개를 보유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우량기업이 10개 이상

생겨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국가리더십 발휘와 기업활력 제고, 생산적 노사관계 등 단기과제와 성장동력 발굴 육성과 중소기업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경제특구 조성, 기업역량 제고 등의 중장기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넘어야 할 고개가 만만치 않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전 산업과 온 국민이 총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길인지도 모른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전산업과 온 국민이 총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길인지도 모른다. 인쇄업계만 놓고 보더라도 2만달러 가는 길에 '제대로' 동참하려면 수주물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생산성을 갑절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인쇄업계만 놓고 보더라도 2만달러 가는 길에 '제대로' 동참하려면 수주물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생산성을 갑절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현재 종이를 재질로 한 일반인쇄물의 연간 국내시장 규모가 약 5조원임을 감안해 볼 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규모이다. 더욱이 덤핑

이나 주먹구구식 경영의 끊은 곳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2만달러 달성은 신기루에서나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인쇄문화산업이 수주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커지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만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2만달러로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쇄인들의 사고방식과 경영활동이 1만달러시대에서 '2만달러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오세익·편집주간〉